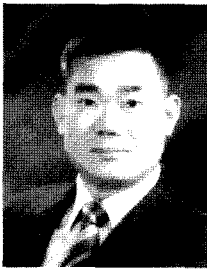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관리요소(2)



유 재 석 협력소장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 1월 동절기의 이상적인 육추실 꾸미기
- 2월 병아리 무게와 사육성적과의 관계
- 3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관리요소(1)
- 4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
- 5월 초산 및 노계병아리 입추시 사양관리 방법
- 6월 출하시 중량체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 7월 열사 및 무더위에 대한 대책
- 8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2)**
- 9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2)
- 10월 질병발생을 사양관리로 극복하는 방법
- 11월 깔짚 종류에 따른 사양관리 방법(툽밥, 왕겨, 볏짚)
- 12월 육계사육 시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

머리말

기상청의 예보에 의해 10년 만에 찾아온다는 폭염에 대해 더울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기온이 높을 줄은 몰랐다. 참으로 덥다. 덥다해서 모든 분야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만, 특히 축산분야 중 양계분야는 산란계, 육계, 종계 등 모든 분야에서는 더위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종계관리는 향후 육계사업의 성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폭염을 보면서 우리의 계사시설 현대화가 더욱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느낀다. 기상이변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3월달의 환절기 사양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핵심요소 3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호흡기를 줄이는 문제하고, 두 번

째는 환기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계군의 영양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문제였다.

가을철의 환절기는 봄의 환절기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역시 8~10월달은 더위와 함께 주간과 야간의 기온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문제가 핵심요소다.

그 첫 번째는 역시 호흡기문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호흡기 발생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환기에 따른 습도유지 문제다. 세 번째는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로 종계의 영양부족 현상이 실용계(병아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료의 곡류 및 유류가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원자재인 사료 품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다.

1. 병아리 문제

올 가을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병아리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봄, 여름에도 병아리 품질은 매우 낮았다.

병아리 가격이 높아서 선별이 약했고 살모넬라 감염계군이 많았으며 환우계군이 많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물론 곡류가 인상으로 태국산 원료를 많이 쓰거나 첨가제의 함유량을 낮추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료의 품질이 낮아진 것도 병아리 품질이 나빴던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종계가 정상적인 사료섭취가 어려워진 점도 가을에 병아리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종계장이나 부화장과 매번 싸울 수도 없고 닭 사육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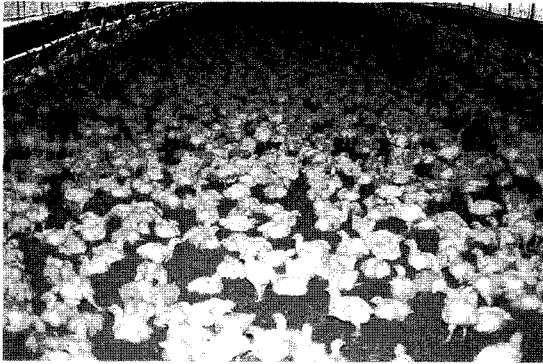
첫째, 일반 농장 (개인사육)이든 계약 농장이든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문제되는 부화장의 병아리를 구매하지 말고 검증된 부화장의 병아리를 구매하거나 최소한도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점만이라도 인정하는 부화장과 거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장만 피해자가 된다.

두 번째는 병아리가 입추되면 좀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퀴놀론제제의 항균제로 클리닝을 3~4일간 실시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입추 당일날 모든 농장은 병아리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가검물 20여수를 검역기관에 의뢰하여 몇 가지의 필요한 검사(역가검사/ 모계로부터 질병감염 여부/ 특히 살모넬라 감염)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병아리를 일주일 동안 강력하게 선별 실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입추(육추)실을 만들면서 온도와 습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특히 급수관리(첫물)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다. 육추실 크기도



매우 중요한데 평당 150수가 넘지 않도록 한다 (10,000수에 70평 정도). 문제되는 병아리가 입추되면 정상적으로 사육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필자가 올 봄과 여름에 처절하게 느끼는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2. 사료문제

사료가 문제될 때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문제되는 사료를 쓰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특히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농장이라면 계열주체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첫째는 계사환경을 좋게 하고 추가로 농장에서 사료에 여러 가지 영양제든 첨가제든 보강을 해서 사료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호흡기가 발생된 농장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많은 농장 또는 감보로병(전염성 F낭병)에 감염된 농장은 사료를 해집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하지만 사료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면 육계의 생산성에 치명적이다. 사료 역시 문제가 되면 최소한도 문제에 대해 인정하는 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박사가 스스로 자신의 기존 블랙홀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우리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풍토는 언제 생길런지...

참고로 축산에서 병아리는 PL법(제조물 책임법)에 적용이 안되지만 사료는 PL법에 적용을 받는다. PL법의 핵심은 과거에는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만든 자나 회사에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PL법은 물건에 이상이 발생되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그 물건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나 물건을 산 사람에게 증명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악용하면 안되지만 잘 활용해보자.

3. 환기와 습도문제

항상 강조하지만 육계에서 환기의 핵심은 계사의 온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사내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주는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계사내로 유입시켜 산소 부족을 해결하고 계사내부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이다.

따라서 일령이 증가할수록 환기량은 당연히 증가시켜주고 환기증가에 따른 계사내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열풍기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농장은 온도센서에 웬을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웬은 작동되지 않거나 최소환기만 작동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온도는 맞을지 모르지만 산소부족으로 배에 물이 차는 복수증이 발생하거나 유해가스 때문에 눈이 붓고 사료섭취량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질병발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환기량은 무조건 일령이 증가하면서 높여줘야 한다.

환기를 하면서 반드시 보완해 줘야 할 문제는 계사내부의 습도문제이다. 웬이 작동되면 당연히 유해가스도 밖으로 나가지만 계사 안에 있던 습도 밖으로 나가게 돼서 계사 안이 건조하게 된다.

계사 안이 건조하면 당연히 먼지발생이 많고 닭의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며 호흡기 발생과 함께 2~3일만 있으면 대장균에 감염된다. 따라서 안개분무장치나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사내부에 60% 이상의 신선하고 청결한 습도를 유지해줘야 정상적인 사육을 하게 된다. 특히 무창계사인 경우 안개분무장치가 작동될 때는 웬의 작동을 정지시켜줘야 계사의 바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습도가 유지될 수 있다.

4. 호흡기 발생문제

가을의 환절기나 봄의 환절기나 온도변화에 의한 호흡기 발생요인은 비슷하다. 지난 3월호 「월간 닭고기」 76~77쪽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단지 올 여름을 지나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종계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모계로부터 호흡기균(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됐을 지라도 농장에서 육추관리, 즉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관리 등 계사환경이 좋으면 보균만 하지 발현이 안되므로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특히 요즘에 와서 육추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점으로 난황에 대한 흡수가 얼마나 잘 됐느냐가 핵심으로 연구되면서 모든 면역체계의 출발이 병아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난황의 흡수여부에 달려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모든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난황의 흡수가 중요한데 난황흡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물 급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료 섭취다. 물론 적정의 온도와 습도 관리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입추 후 농장에서의 초기관리는 호흡기 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관리요소임을 강조하고 싶다. C

· 문의 : 011-217-5972 유재석